



윈스턴의 1984년과 윤석열의 2022년

George Orwell의 소설 <Nineteen Eighty-Four>는 사람의 행동과 생각은 물론 영혼까지 통제하는 큰놈(Big Brother, B-B) 체제에서 인간이 파괴되는 과정을 그렸다. 짐사람과 별거중인 39세 Winston Smith는 진실성(Ministry of

Truth)의 기록부(Records Department)에서 당의 지침에 따라 과거를 완벽하게 날조하는 일을 맡고 있다.

진실은 소각되고 언어는 파괴되는 1984년

전지전능인 큰놈은 항상 옳고 항상 성공하고 항상 승리해야 한다. 큰놈의 언행이 과거 행적과 다르면 책이나 잡지나 신문 등에 적힌 원래의 사실과 그림과 숫자를 폐기하고 현재의 것으로 바뀌치기 한다. 단순히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억소각통(memory hole)에 넣어 완전히 삭제해버린다(42쪽). 큰놈 체제를 위해 과거를 날조하고 왜곡하는 현실통제(reality control)는 끊임없이 사람의 기억을 무너뜨린다(37쪽). 승리한 거짓말은 역사가 되고 진실이 된다.

큰놈은 곳곳에 모니터(telescreen)와 마이크(microphone)를 설치하여 사람들의 언행을 감시한다. 잠자지 않는 눈과 귀다(174쪽). 사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의견을 교환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은 범죄다.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의 뒤바뀐 사실에 의심을 품는 것은 사상범죄(thoughtcrime)다. 큰놈의 언행에 대해 걱정과 불편을 내비치면 표정범죄(facecrime)다(65쪽). 순결은 당에 대한 충성이고 성행위는 반란이고 욕정欲情은 그 자체로 사상범죄다(71쪽). 중앙정보부에 해당하는 애정성(Ministry of Love)과 사상경찰(Thought Police)은 큰놈에게 위협한 자들을 감시하고 여차하면 잡아다가 매질을 하여 물고物故를 내거나 영혼까지 완전히 개조시킨다.

결국 사람들은 물리적이든 정서적이든 외톨이로 살면서 아무 생각없이 각자에게 주어진 일만을 하고 주어진 정보와 노래만 듣고 주어진 음식만을 먹고 주어진 놀이만을 해야 한다. 연구부(Research Department)에서는 새말사전(New-speak Dictionary)을 만들어 단어를 파괴하고 언어의 표현감을 잘라낸다(54쪽). 단어를 줄이고 단순화함으로써 생각할 범위를 줄인다(55쪽). 언어의 환원이다. 큰놈은 궁극적으로 모든 개념을 한 단어로 표현하도록 하여, 말하자면 사상범죄라는 말조차 존재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2022년 윤석열은 윈스턴인가? 큰놈인가?

윤석열씨의 언행을 보면 스스로 큰놈이라도 된 듯하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하든 진실이고 무슨 짓을 해도 공정과 정의라는 투다. 덩치값도 못하는 검사질이다. 사실이 어찌되

었던 검사가 기소하면 죄가 있는 것이고 안하면 죄가 없는 것이다. 김학의는 화질이 선명한 동영상도 나와도 무조건 무죄여야 하고 한명숙은 물증없이 진술이 오락가락해도 반드시 유죄여야 한다.

윤씨가 사고(말실수)를 치면 검은옷들이 일사불란하게 사실을 뒤집고 왜곡하여 진실로 둔갑시킨다. 언어공작이다. 소정은 이런 자들을 수구기득권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한 진실의 자가발전소라고 했다(1991: 90). “이 새끼”는 미국 의회가 아니라 국회고 “바이트”가 아니라 “날리면”이다. 이태원 참사가 아니라 사고이고 희생자가 아니라 사망자다. 이렇게 먹이를 흘려주면 수구세력(언론)이 몰어들고 방방곡곡에 떠벌린다. 진실을 의심하는 자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빨갱이라 짓어낸다. 입다물라는 협박이다. “과거를 통제하는 자가 미래를 통제하고, 현재를 통제하는 자가 과거를 통제한다”(37쪽). 결국 권력잡은 놈이 다 해먹는다는 소리다.

윤씨는 “전쟁은 평화, 자유는 노예, 무지는 힘”이라는 큰놈의 기치에 충실한 듯하다. 평화를 말하면서 대책도 없이 강대강이다. 어찌 원점타격을 하고 전술핵을 배치한단 말인가? 허구헌날 자유를 들먹이지만 정적의 자유는 없다. 당원이 아닌 노동자는 그저 포르노와 복권(lottery)이나 즐기는 게 돼진다. “Proles and animals are free”(75쪽). 물에 빠져 죽든 압사당하든 무슨 대수인가. 대통령을 처음 해보는 패기가 솟구쳐 좌고우면하지 않고 폭주한다. 정치, 외교, 국방, 경제, 문화가 폭삭 망해도 무지의 힘은 죽을 줄을 모른다.

윤씨는 윈스턴처럼 의심이 많아서인지 측근에만 의지한다. 윤씨의 언행에 맞추는 그들의 현실통제는 반성을 불가능하게 한다. 오웰의 1984년을 살고 있다. 답이 없다. 어쩌면 그는 지금 공상의 여인 “유지”를 만나 마지막 자유를 불사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윈스턴처럼 큰형님(백성)에게 끌려가 영혼까지 털릴 운명인 것을...

줄리아는 줄리의 초상인가?

윈스턴의 애인은 공상부(Fiction Department)에서 일한다. 26세 싱싱한 그녀는 포르노부서(Pornsec)에서 노동자들을 위한 싸구려 포르노를 책자를 만들다가 이제는 소설기계(novel-writing machine)로 허접한 얘기를 쓰고 있다(136-137쪽). 당의 지시니 얼마나 재미있는지는 관심 밖이다. 그녀는 똑똑하지도 않다. 과거와 현재, 사실과 진실에 관심이 없다. 큰놈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고 믿지도 않지만, 어차피 실패로 끝날 반란은 어리석은 것이라 생각한다(138쪽). 인생은 단순히 쾌락을 즐기는 것이라고 믿는다. 16세때 60세 노인과 첫경험을 한 후 당원들과 수십 차례 성관계를 맺는다. 이런 행위까지 간섭하고 처벌하는 당과 법을 저주할 뿐이다.

세간에 알려진 줄리도 비슷하다. 젊고 당돌한 미술전공자로서 박사학위로 강의까지 했었다. 최근 예쁘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아름답지는 않다. 똑똑하거나 재능이 있지도 않다. 알만한 작품도 없고, 요란하게 기획사를 운영하지만 실속은 없다. 학위 논문은 남의 것을 베낀 것이고 영어도 한자도 처참한 수준이다. 이력을 돋보이게 날조했지만 금방 탄로날 만큼 허당이다. 엄마와 함께 부동산과 주식으로 부당한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끊이질 않는다. 그런데도 줄리는 귀신처럼 수사와 기소를 피해왔다. 학생 때부터 유흥업소에 나가 힘깨나 쓰는 늙은 남자(검사)들과 어울려 방패막이로 삼았다는 소문이다. 천박하나 특유의 요설로 뒷배를 갈아타면서 돈과 권력을 탐했다. 참으로 화려한 인생이다. 줄리는 윈스턴의 여인처럼 영화같은 애정행각에도 아이를 갖지 못했다. 윈스턴이 사랑하고 끝내 배신한 여인의 이름이 바로 줄리아(Julia)였다.



지난 달 29일 할로윈을 즐기 위해 이태원에 방문했던 156명이 좁은 골목에서 뒤엉키면서 압사당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 거의 본능적으로 세월호 참사를 떠올렸다. 사흘 동안 대통령 윤석열, 국무총리 한덕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경찰청장 윤희근, 서울경찰청장 김광호, 서울시장 오세훈, 용산구청장 박희영 등의 발언을 들으면서 탄식했다. 또다시 무지하고 무책임한 자들이 앞길에 구만리같은 청춘들을 죽였다.

일반적으로 남의 이름을 가지고 놀리는 것은 점잖지 못하다. 유치한 말장난이기 십상이다. 하지만 이들의 망언과 회언을 들으면서 마음이 바뀌었다. 참으로 비열하고, 한심하고, 이상하고, 회한하고, 철딱서니없는 자들이다. 참사 동영상을 보지도 못할만큼 참담한 마음인데, 처음엔 어이가 없다가 혀를 차다가 이제는 화가 치민다.

이상민과 윤희근의 주책바가지

이상민씨는 30일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렸던 것은 아니고 ...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 다음 날에는 “경찰의 정확한 사고 원인이 나오기 전까진 선부분 예측이나 추측이나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혔다. 경찰을 지휘하고 통제하기 위해 경찰국이 필요하단 자가 이제 와서 장관은 책임이 없다니 정신분열증인가?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입닥치고 있으라고? 그 발언 자체가 음흉한 정치질이다. 참사는 물론 그 조사까지도 따져봐야 한다.

주요 공직자와 경찰 지휘부는 주최자가 없어서, 관련 규정이 없어서 참사를 막지 못했다고 강변했다. 대통령실은 31일 “경찰은 집회나 시위와 같은 상황이 아니면 일반 국민을 통제할 법적, 제도적 권한은 없다”고 했다. 그럼 성탄절에는 왜 경찰이 설치고 다녔나? 예수나 산타클로스라도 강림했나? 윤희근씨도 1일 “주최자 없는 자발적 다중 운집 상황에 대한 경찰 또는 지자체 등의 권한·역할·책임에 대해 많은 의견과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다들 검사, 판사, 경찰 해먹기 위해 헌법·행정법을 마르고 닳도록 공부했던 자들 아닌가. 경찰警察 자체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인데 대체 뭐 소리를 하는가. 주최자가 없어서라고? 한 터럭의 염지도 없는 주책바가지다.

서울시장과 용산구청장의 궤변

오세훈씨는 정책탐방을 한답시고 21일부터 10일 일정으로 유럽을 돌고 있었다. 30일 급히 귀국한 오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고

할로윈을 비웃는 '헬러윈'들의 주책바가지

얼버무렸다. 전자우편도 휴대폰도 끊고 휴가를 즐겼나? 실시간 확인은 커녕 사후 보고도 못받았던 말인가? 오씨는 1일 나타나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며 울먹이고 눈물까지 흘렸다. 시장이 시민에게 사과하는데 무슨 대단한 결심이 필요한가? 면피용 생소다. 악어의 눈물이라는 비아냥이 나온다. 사죄한다면서도 수사를 통해 책임소재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무리 조사해 봤자 자신의 형사책임은 없다는 소리다.

31일 조문에 나선 용산구청장 박희영씨의 망발은 더 주옥같다. “저희는 전략적인 준비를 다 해왔고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습니다 ... 이건 축제가 아닙니까. 축제면 행사의 내용이나 주최 측이 있는데 ... 그냥 할로윈 테이에 모이는 일종의 어떤 하나의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과연 공직자의 입에서 나올 소리인가? 공직이 무엇인지 자기 책임이 무엇인지 전혀 감(개념)이 없는 자 아닌가. 뒷배인 지역구 의원 권영세씨는 몸사리고 침묵중이다.

윤석열과 한덕수의 횡설수설

1일 등판한 윤석열씨는 무식의 나래를 펼쳤다. “드론 등 첨단 디지털 역량을 적극 활용해서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기술을 개발하고, 필요한 제도적 보완도 해야 ... 이번 대형 참사가 발생한 이면도로뿐만 아니라 군중이 운집하는 경기장, 공연장 등에 대해서도 확실한 인파 관리 안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9월 태풍이 지나간 뒤 재난 대응 매뉴얼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기억이나 하는지. 뭘 일만 터지만 되든 말든 습관적으로 하는 소리다.

같은 날 한덕수씨도 거들었다. 외신기자들에게 “이태원 참사는 이른바 클라우드 매니지먼트라는 인파 사고의 관리 통제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아직 인파 관리 또는 군중 관리라고 하는 클라우드 매니지먼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개발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했다. 누가 써줬는지 모르겠지만 윤씨와 한씨 모두 알고 하는 소리는 아니다. 굳이 “클라우드 매니지먼트”를 반복하는 모습은 궁색함 자체다. 참사를 말하는 자리에서 실실거리며 어설픈 영어로 농담을 던지는 여유라니... 총리는 영어로 말하고 통역은 한국어로 말하는 황당함이어... 이를 어찌 사람이라 하겠는가.

참사 책임자들은 하나같이 제도 탓을 하고 기술 탓을 했다. 법이 없고, 규정이 없고, 매뉴얼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 휴가철이나 연말연시 해돋이에는 매년 참사가 반

복되었어야 했다. 아니면 경찰과 소방서가 권한도 없으면서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했다는 소리다. 결론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둘러댄 거짓말이다. 매뉴얼만 해도 너무 많아서 못찾을 지경이다. 드론이 없고, GIS가 없고, CCTV가 없어서 이런 참사가 난 것이 아니다. 당시 CCTV는 참사현장을 비추고 있었지만 담당자는 판짓을 하고 있었다. 문정부에서 1조 5천억 예산을 쏟아부은 재난 안전통신망은 제대로 사용되지도 않았다. 이런 데도 무슨 얼어죽을 기술 타령인가.

영정·위패 생략? 사고 사망자?

행정안전부는 30일 전국에 공문을 내려 ‘참사 희생자’가 아니라 ‘사고 사망자’라 하고, 분향소에 영정과 위패를 생략하라고 지시했다. 같은 날 인사혁신처는 근조글자가 없는 리본을 달라고 했다. 근조가 안보이게 뒤집어 달라는 소리다. 그런데 누가 이런 발상을 했는지 총리도 장관도 아는 이가 없다. 무당의 향기나 법사의 손길이 느껴진다. 한마디로 초상집 가서 밤새도록 울어놓고 누가 죽었다고 묻는 황당함이었을까. 얼마전 영국에서 조문을 못다해서 욕먹었던 한을 이제서야 풀어냈을 윤씨의 회한인가?

외신도 disaster라 하는데 왜 incident라 하는가? 그래서 누가 밀었나 조사하나? 사회재난대응정책관이라는 자는 2일 “이태원은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다 ... 그런 지명 뒤에 참사, 압사라는 용어를 쓰면 ...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켜” 그 지역 자영업자가 피해를 입는다고 했다. 그러니 ‘사고’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란다. 업자에게는 이리도 애달프면서 황망하게 죽어간 청춘들에게는 왜 그리도 박할까? 북한 해안에서 변을 당한 공무원들은 전직 대통령마저 겨냥할 만큼 국가안보에 중요한데, 서울 한복판에서 깔려죽은 156명은 공무원 한명값도 못한단 말인가? 결국은 죽은 자도, 책임자도, 참사 그 자체도 잊으라는 소리다.

할로윈을 비웃는 '헬러윈'들

제도나 기술 문제가 아니다. 정치·행정 이론 문제가 아니다. 그냥 사람의 본성과 기본에 관한 문제다. 주요 책임자들의 마음에 백성과 주권자는 없었다. 인간 본연의 모습을 가진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이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클라우드 매니지먼트’나 ‘도어스테핑’은 정권의 무지와 무능과 불통을 상징한다. 그렇다고 없는 것이 있어 보이냐? 이 정권 자체가 참사다. 멸절할 할로윈(Halloween)을 두고 근본없는 ‘헬러윈’이라니... Go to hell이다.

